

호황은 짧고 불황은 길다

노영한

(대한양돈협회 전무이사)

옥수수, 소맥 등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은 양축가 뿐만이 아니고 30% 미만의 곡물 자급률을 가진 우리로서는 온 국민이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식량부족을 걱정하기에 앞서 우리의 먹거리 가격을 걱정해야 할 입장이다.

한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쪽에서 공산품을 수출해서 번 돈으로 농축산물을 수입해서 먹으면 된다는 이론을 전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가 아닌데, 독립국가로서 어떻게 식량안보를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주장이었다. 이제는 무역수지도 적자이고 식량도 가격이 폭등해서 구입하기 힘들어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수출이 잘 되어 돈을 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먹거리 자급률을 유지하지 않으면 독립국가로 유지는 불가능하다.

옛날 한 임금이 무엇이든 요구하면 소원 한 가지를 들어 준다고 하자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하여 달라는 소원을 하였다. 곧 임금이 만지는 것은 모두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의자도, 책상도, 펜도, 종이도 만지는대로 황금이 되었다. 임금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정신없이 만

져 금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얼마가 지나자 임금은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파 식사를 한 후 다시 황금을 만들기로 하고 빵을 집자 빵이 황금으로 변해 버렸다. 결국 임금은 굶어 죽었다는 서양의 우화는 농축산업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UR협상은 결국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황금을 만들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협상 이전에 우리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갖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민주적 토론과 참여의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장치가 없으면 상대방의 숨겨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이는 평소의 대화와 오랜 경험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침묵은 금이요, 말 많은 것을 귀찮게 여기고, 힘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은 억압적 관계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토론은 참여의 방법인데 대개의 경우 겉으로만 토의를 하게 된다.

공청회니, 토론회니 하여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대개는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거나 몇 사람이 짜고 하는 속임수

이번 시작된 불황은
일시적인 고통을 없애는 수매비축이나
수입육 방출 중단도 중요하지만 양돈업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를 꺼려왔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왜 생산비가
높은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검토와 절감될 수 있는 부분과
절감해야 할 부분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90kg 돼지
1마리를 생산하는데 목표를 12만원으로 정하면 이를 위해서
인건비, 사료비는 얼마가 되어야 하고, 생산성은 어느
수준에 맞추어야 되는 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현실로 실천에 옮기기 위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여와 토론을 기피한다.

대개 회의에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경우가, 잘못하면 들러리를 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고 사꾸라로 몰리기 때문이다.

돼지가격이 예상한대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가격조절용 돈육 수입과 방출 시기가 부적절했고, 수입 규격 수입국의 선택에도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였다. 돼지고기 증산을 위한 각종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단지 조성, 시설 확장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제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있다.

높은 생산비, 낮은 돼지 가격이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호황은 짧고 불황은 길다. 규모확대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이 눈물의 씨앗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공생(共生), 공존(共存), 공영(共榮)을 외쳐 보지만 우리 사회는 적자생존의 원리만이 적용될 뿐이다. 적자생존보다는 공생, 공사(共死)가 좋다는 농담도 있다.

콜레라로 죽으면 보상도 없다. 교통사고로 혼자 죽으면 4~5천만원의 보상을 받을 뿐이다. 그러나 대구 가스 폭발이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에서 여럿이 같이 공사하면 2억 5천만원을 받는

다. 과거 소 값 파동은 정부 빚 탕감, 상환기간 연장으로 이어졌다. 공사(共死)는 정부에도, 업계에도 너무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이번 시작된 불황은 일시적인 고통을 없애는 수매비축이나 수입육 방출 중단도 중요하지만 양돈업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를 꺼려왔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왜 생산비가 높은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검토와 절감될 수 있는 부분과 절감해야 할 부분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90kg 돼지 1마리를 생산하는데 목표를 12만원으로 정하면 이를 위해서 인건비, 사료비는 얼마가 되어야 하고, 생산성은 어느 수준에 맞추어야 되는 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현실로 실천에 옮기기 위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불황을 마지막 불황으로 만들어야 한다. 산업이 무너지는 공사(共死)를 막기 위해 적응력을 길러가며 구체적인 생산비 절감방안이 토의되어야 한다.